

NXP, 블루투스 스마트 솔루션에 메쉬 기능 추가로 IoT 경험 향상

2015 블루투스 월드에서 새로운 스마트 솔루션 선보여

2015년 4월 14일, 서울 - 사물 인터넷 솔루션 공급사인 NXP반도체(NASDAQ: NXPI)는 저전력 메쉬 기능을 새롭게 탑재한 '블루투스 스마트' 포트폴리오를 발표했다. 이 기술은 최근 인수한 퀸틱([Quintic](#))의 저전력 블루투스 (Bluetooth Low Energy, BTLE) 기술 및 웨어러블 사업 부문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이를 통해 회사의 블루투스 제품군의 면모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포트폴리오는 NFC, ZigBee, 블루투스 스마트 등 IoT와 관련한 NXP의 저전력 무선 연결 표준의 일부인 블루투스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NXP 수석 부사장 겸 보안 모니터링 및 제어 장치 부문 총괄인 아시트 고엘(Asit Goel)은 “호환성, 저전력, 그리고 보안 솔루션이야 말로, 사물 인터넷 기반 스마트 기기와 웨어러블 기기의 다음 물결을 선도하는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며, “저전력 메쉬 기능을 블루투스 스마트 포트폴리오에 추가함으로써, NXP는 날로 성장하는 시장 추세와 업계 표준에 최적화된, 선도적인 블루투스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NXP는 이와 같이 메쉬 기능을 블루투스 스마트 솔루션에 추가함으로써, 개발자 및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다중 노드 통신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조명, 센서, 온도 조절기, 기타 스마트 홈 구현을 위한 각종 장치 및 전자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의 메쉬 네트워크의 플러딩 (flooding) 기술은 방송 신호를 대량으로 방출하여 에너지 소모가 급증하는 측면이 있었다. 반면 NXP 저 출력 솔루션은 노드 사이의 연결을 효율적으로 해 주는 프로토콜에 동기화 및 라우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NXP 솔루션은 전체 네트워크에 걸쳐 에너지 효율을 몇 배나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번 솔루션에는 향후 신 기술 개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보안 성능과 자체 복구 기능을 지닌 자체 구성 네트워크 기능 및 계층화 아키텍처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설치 후에도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원격 업데이트 기능을 추가하였다.

‘펄스 솔로’와 같은 스마트 조명 및 스마트 홈 장치의 OEM 제조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업체인 생LED(SengLED)의 부사장인 찰스 쉰(Charles Sun)은 “NXP는 뛰어난 블루투스 솔루션과 함께 강력하고도 완전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하여 스마트 홈 분야 및 산업 통신 분야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자체 제품의 혁신, 그리고 고객 만족도 제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우리는 현재는 물론, 미래의 고객들에게 제공될 스마트 홈 기기의 기술 제공사로서 NXP를 선정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XP는 4월 14 ~ 15일에 걸쳐, 캘리포니아 주 산타 클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블루투스 월드 행사에서 이번에 발표된 신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블루투스 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부스 번호 24) 또한 행사 중인 4월 15일에는 사물 인터넷 공간에서의 블루투스가 지닌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지트 부사장이 기조 강연을 진행 할 예정이다. NXP 블루투스 스마트 솔루션에 대한 추가 상세 정보는 [링크](#)를 참고한다.

NXP 반도체 소개

NXP 반도체는 스마트 월드를 위한 보안접속을 보장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고성능 혼합신호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NXP는 무선 인프라스트럭처, 조명, 헬스케어, 산업, 소비자용 기술 및 컴퓨팅을 포함한 자동차, 인식, 모바일 산업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혁신을 창출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회사인 NXP 반도체는 25개 이상의 국가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2014년 매출은 미화 약 56억 5천만 달러다. NXP 관련 뉴스는 www.nxp.com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NXP 반도체 블로그 (<http://blog.naver.com/nxpkor>)에서도 NXP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